

2020 서대문구 동물정책 토론회 회의록

○ 일시 : 2020. 1. 8.(수) 19:30~21:40

○ 장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차승연 의원, 이동화 의원,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 길고양이동행본부, 관악구 길고양이보호협회, 홍은1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서대문협치회의 관계자, 서대문구청 관련부서 직원, 동물정책에 관심있는 서대문구 및 서울지역 관심있는 주민 등 80여명

○ 진행순서 [진행 : 차승연 의원]

1. 개회사 및 내빈소개

2. 발제 및 토론

- ▶ 발제. 조은영 서대문구 길고양이동행본부 대표 / 서대문구 유기동물정책 진단
- ▶ 발제. 서유진 관악구 길고양이보호협회 회장 / 관악구 길고양이 동물정책 소개
- ▶ 토론. 모의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 인식개선을 통한 동물과의 동행
- ▶ 토론. 이기철 서대문구 수의사회 부대표 / 서대문구 길고양이 TNR현황

3. 질의응답

○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문) 홍은동 재개발구역에 곧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데 철거지역 내 남은 길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관악구 사례가 궁금하다.

답변) 재개발구역의 고양이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관악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차를 실행해 본 경험은 없다. 강동구 “둔촌냥이”에서 몇 년 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주시킨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질문) TNR과정에서 고양이들이 학대받는 경우도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회피하는 동물병원도 있을텐데, 관악구는 5개의 TNR지정병원을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궁금하다.

답변) 길고양이보호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지정병원의 원장이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다가 TNR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관악구 수의사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수의사를 설득하면서 2017년부터 5개의 병원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의견제시)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현재 법제도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고 어렵다.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학대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견수렴) 서대문구청에도 동물정책을 전담할 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명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물권리팀, 반려동물팀, 동물보호팀, 동물복지팀 중 「동물복지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차승연 의원의 정리발언) 서대문구에서 동물정책관련 토론회 자체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첫 발을 댈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음 한다. 많은 숙제를 안고 가는 만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특히 오늘을 시작으로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강의나 현장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과 타자치구 사례 등을 종합해서 우리구 담당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해 보겠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동물정책에 대해 전담팀 구성, 인력 등은 물론 정책이나 제도개선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 토론자 발표내용은 첨부된 자료 참조

○ 행사사진

